

소비와 투자 확대하고 시민생활 부담 완화



경제 '다함께 착·착·착' (착한소비·착한금융·착한일자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민생경제 9800억 투입
공공배달업 확대·재정 신속집행
대중교통비 지원·출생축하금도
“추경 편성, 직접 지원 확대해야”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 정부의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한 대규모 지원이 시급하지만, 우선 시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올해 총사업비 9800억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경기 침체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신규 12개, 확대 38개, 지속 47개 등 총 97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우선 △광주 방문의 해 운영 △착한소비 캠페인 △광주상생카드 할인 발행 △광주공공배달업 확대 운영 △지방재정 신속 집행 등 소비의 그릇을 키우는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무엇보다 신속집행 대상 6조8253억원의 63%에 해당하는 4조3000억원을 올 상반기에 집중 집행, 소비를 촉진해 경기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G-패스 사업은 대중교통비 어린이 무료, 청소년·어르신 반값(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대자보 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출생가정(6000명 대상)에는 출생축하금 200만원과 함께 출생아 1인당 상생카드 50만원을 지원

해 출산가정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광주 소상공인 육아지원 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과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80여명에게 소상공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6000여명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기존 생활돌봄 10종에 3종을 더해 더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향상을 도모한다.

여기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 9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3만8457명에서 4만2833명으로 인원을 확대 모집한다. 대상자는 장애인, 중장년, 노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여전히 갈길은 멀다. 지역시민단체는 ‘소비 촉진’이 가장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김승재 광주상인연합회장은 “실효성 있는 경제 대책을 위해 국회 차원의 추경 편성이 절실하다.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특례보증이나 지역화폐 등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결국 지역 내에서 돈이 돌아야 내수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광주시당위원장은 “내수경기 침체와 자동차 등 주력 수출 분야의 급감으로 광주 경제가 암울한 상황이다”며 “지역 의원들은 큰 틀에서 조기 대선 준비와 함께 호남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중앙당과 논의해 나가겠다. 호남 미래 성장동력으로 현재 AI·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 등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병하·정성현 기자

살리는 광주상생카드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상생카드를 이용해 가맹점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 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소상공인 매출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광주상생카드는 2019년에 도입된 이후, 2025년 1월말 기준 누적 발행액이 4조 7509억원이고, 총 4조 6056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었다.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은 상시 7%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은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 10% 이내 할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광주상생카드로 발생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민생 대표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광주상생카드를 단순한 결제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큰 가치

가 담겨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광주상생카드 효과는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기반이 된다.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야만 그 힘이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광주상생카드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광주상생카드는 우리가 더 나은 변화를 실현하는,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지역 발전의 씨앗이다.

‘우리의 소비가 바로 지역의 미래를 만든다’는 인식을 갖게 될 때, 광주상생카드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지역 내에서 순환되면 그만큼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울 수 있다.

광주상생카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축이자,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아이콘이다.

앞으로도 광주상생카드는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상생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적극 지원에 경제 ‘활력’

▶1면서 계속 사업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특례보증을 신청했다는 양동복개상가 상인 김나래(63)씨는 “이전에 대출받은 적이 없어 안 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올해 규모가 확대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다”며 “특례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이 지속·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자금 지원’ 사업으로 경영난을 완화하는 등 침체된 지역 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광주시로부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특수파장 LED광센서 모듈 생산 개발업체 읍토이앤지 정용인 대표는 “대출 1억원과 2년간 대출이자 이차보전 2%를 지원받아 올해 있을 일본 수출을 위한 경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재작년 광센서를 활용한 의류기기 사업 승인을 받고 지난해 11월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수술이 적어져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때 소요된 비용 처리와 올해 계획된 수출을 위해 자금 지원을 신청했다. 이자 지원도 2%나 돼 사업을 진행하기 심적으로 편안하다”고 말했다.

김흥탁의 Branding Class 3기모집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0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5년 3월10일 개강-5월26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접수 기간]** 2025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 [수강료]** 22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강사 이력]** Creative Solutionist 김흥탁
 - Founder /2kg_Creative Solution Lab
 - Chief Creative Officer / Paulus_Creative Agency
 -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 Collective_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 / Adfest
 - 전 Chief Content Officer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 전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전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 위원
 - [빌게이츠재단+ Cannes Lions]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장
 - Cannes Lions, One Show New York, London International Awards, New York Festival 등 Global Creative Festival 수상, 심사위원 및 Speaker 초빙

